

예보광장

2024 SPRING+SUMMER VOL.54

예보광장

예보광장

2024 SPRING+SUMMER
VOL.54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MAGAZINE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발행일 2024년 7월 31일 발행인 유재훈 발행처 예금보험공사(www.kdic.or.kr)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전화 02-758-0114 팩스 02-758-0040 디자인·제작 문화공감 02-2266-1897



〈예보광장〉 54호를 웹진으로도 만나보세요.

Contents



04

여기는 KDIC

KDIC 뉴스포커스 제작 현장

06

KDIC가 합니다

프런티어 정신을 찾아 떠난 동굴탐험대

10

zoom

국내 어디서 출발해도 2시간이면 도착!
우리가 몰랐던 충주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14

ART & KDIC

공공기관 속 미술관 “예보갤러리”
두 번째 이야기 : 서예(書藝)편

18

KDIC + GLOBAL 1

美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알아보기

22

취임 인터뷰

신임 임원 4인의 비전과 포부

28

뉴페가 났다

2023년 하반기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을 소개합니다!

34

KDIC + GLOBAL 2

세계 각지에서 빛나는 KDIC 직원들

38

KDIC TOGETHER

KDIC의 이웃을 소개합니다 ②
한국원자력환경공단

40

청렴예보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노력

42

2024 상반기 KDIC NEWS

44

KDIC 라운지

제4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소고

46

시사 KDIC

햇빛과 공기에도 세금을?
세계사 속 기상천외한 세금이야기

48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예보광장 독자 설문조사

〈예보광장〉은 독자 여러분과 호흡하며 더 나은 예금보험공사 사보 제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자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사보 개선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QR코드로 접속하시면 설문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하기



모두의 노력으로 밝게 빛나는 KDIC의 등대 KDIC 뉴스포커스 제작 현장

예금보험공사의 사내 스튜디오는 예금보험공사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영상으로 전달한다. 그중 'KDIC 뉴스포커스'는 각 부서의 이슈를 최신 트렌드에 맞춰 소개하며, 직원들과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몇달 간 끊임없는 노력을 이어왔다. 카메라 울렁증을 참고 부서 대표로 출연한 임직원부터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홍보실 미디어홍보팀까지, 뉴스에서는 볼 수 없는 스튜디오 안의 생생한 이야기를 지금 함께 만나보자.



정리 홍보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king 1 “ON AIR” 불빛이 밝아지다

여기는 지난해 9월에 오픈한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의 사내 스튜디오(FINANCIAL LIGHTHOUSE)이다. “ON AIR” 등의 불이 켜지고 PD의 시원한 큐 사인이 나오자 스튜디오 안은 일순간 긴장 모드가 된다. 단정한 느낌의 베테랑 아나운서가 오픈닝을 알리고, 맞은편 자리에서는 직원들에게 매우 친숙한 윤성욱 부장이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대담을 이어간다.

Making 2 사명감을 가지고 방송에 임하다

부서 대표로 차출되어 카메라 앞에 앉은 이상 카메라 울렁증도 이겨내야 한다. 현업으로 시간을 쪼개어 출연한 낯선 방송, 난생 처음으로 메이크업까지 받아야 하니 볼멘소리가 나올 법도 하다.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윤성욱 부장의 표정은 사뭇 진지했다. 오히려 부서원들이 열심히 수행해오고 있는 업무를 직원들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알려겠다는 사명감에 한 단어 한 단어 힘주어 말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Making 3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다

이날 촬영한 방송은 예보 홍보실에서 매월 자체 제작하는 뉴스&대담 프로그램 'KDIC 뉴스포커스'로, 예보 각 부서의 이슈를 최근 트렌드에 맞추어 글이 아닌 영상을 통해 대내외에 알리고자 기획됐다. 이를 위해 홍보실 미디어홍보팀이 출연 부서장 섭외, 촬영, 편집 및 영상 배포 등 전 과정을 총괄하고, 프로그램의 수준 향상을 위해 프리랜서 아나운서와 대본작가도 섭외한다. 출연 부서의 요청이 있으면 하루 전날 리허설을 진행하기도 하고, 현장에서 녹화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는 재촬영까지 하며 영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Making 4 예보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다

예보는 그동안 기본 월 1회 제작되는 'KDIC 뉴스포커스'를 통해 여러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해 인사지원부의 장애인 유도팀 소개(10월), 국제협력실의 FDIC 업무협약 소식(11월)을 시작으로 올해에는 회수기획부의 부실금융회사 보유 미술품 전시회 및 매각 소식(1월), SIF정리부의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2월),

국제협력실의 인도네시아 수견직원 생활기(3월), 기금관리실의 종료를 앞둔 상환기금과 예보기금 특별계정(5월), 그리고 이번 은행리스크관리부의 차등보험료율제도 등 업무소개(6월)까지 상반기에만 총 5편이 제작됐다.

제작된 영상의 내용이 대외에 공개해도 무방한 경우에는 예보 공식 유튜브 채널(예보TV)에 업로드하여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예보 포털(파고TV)을 통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송된다. 거기에 직원들이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30초 스팟영상을 제작하여 직원용 엘리베이터TV에 송출하여 시청을 유도하고, 센스 있는 썸네일도 제작하여 포털 메인 화면에 배너로 활용하는 등 추가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이런 노력이 통한 것일까. 유천우 회수기획부장이 출연한 '부실금융회사 보유 미술품 전시회 및 매각 소식' 편은 전 직원이 거의 다 보았다고 할 정도의 조회수인 660뷰 이상을 기록하며 많은 응원 댓글도 받았다.

이렇듯 꾸준한 노력과 헌신으로 사내 스튜디오는 예보의 다양한 활동과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소통창구가 됐다. 앞으로도 예보는 보다 많은 이들에게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KDIC 뉴스포커스'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Mini Interview



“하기 전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은행리스크관리부 윤성욱 부장



“예보 업무와 이슈에 대한 궁금증, 하나씩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홍보실 미디어홍보팀 강동훈 팀장



Q 그동안 다른 부장님들이 출연하는 것을 보시지만 하시다가 이렇게 직접 출연을 해보니 소감이 어떠신가요?

A 촬영을 하기 전에는 다른 분들이 안 해본 것을 먼저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따로 일정을 내기가 쉽지 않아 몇 번 미뤘었는데, 막상 용기내어 출연해보니 색다르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Q 뉴스 촬영에 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A 스크립트를 잘 써야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같이 체크 했는데도 말하는 느낌을 살려 쓰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다음으로 하실 분들에게 팁을 드리자면, 글은 좀 짧게 '구어체'로 작성하는 것이 진행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Q 'KDIC 뉴스포커스' 프로그램을 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A 사내 업무 관련 첫 소통 채널로 시작하게 됐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사 내 많은 부서에서 어떤 업무가 진행되고 있고, 최신 이슈는 무엇인지를 직원과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여드리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다른 콘텐츠를 미리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A 예금보험제도 소개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공사 유튜브 채널인 '예보TV'를 통해 많이 소개할 예정이니 많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프런티어 정신을 찾아 떠난 동굴탐험대

가자! 미지의 세계, 백룡동굴로!

- 예보 5인방의 '백룡동굴' 탐험기 -

이른 아침부터 뜨거운 햇볕이 내리쬘던 지난 6월. 예금보험공사 5인이 '프런티어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한데 뭉쳤다. 사무실에 앉아서만 지내며 잊고 살았던 모험심을 일깨우고자 그들이 찾은 곳은 강원 평창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탐험형 동굴인 '백룡동굴'. 아직 가보지 못한 미지(未知)의 세계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던 예보인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백룡동굴 탐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부터 시계방향) 감사실 이은지 실무역,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 IT전략운영부 홍석주 조사역, 홍보실 백남수 책임역, 인사지원부 정성학 선임조사역

우리는 동굴탐험대,
백룡동굴로 Go! Go!



탐험의 아침이 밝았다. 7시 30분에 예보 본사에 집결한 5명의 '백룡동굴탐험대'. 이들은 홍보실 백남수 책임역(탐험대장), 인사지원부 정성학 선임조사역, IT전략운영부 홍석주 조사역, 준법경영실 조민서 주임, 감사실 이은지 실무역으로, 다양한 직급을 대표하여 예보인의 탐험 정신을 보여주기 위해 기꺼이 뭉쳤다. 새벽에 일어나 3시간이 넘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부담감에 몸은 무겁지만, 처음 가보는 미지의 세계를 조우한다고 생각하니 다소 들뜨기도 한 표정들이다. 백룡동굴은 평창군 백운산(白雲山) 자락에 위치한 천연 석회동굴(전체 길이 1,875m)로, 백운산의 '백'자와 최초 발견자(정무룡)의 '룡(龍)'자를 붙여 지어졌다는 것이 정설이다. 1979년 천연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이후 2010년까지 미개방되어 있던 백룡동굴은 동굴생성물과 생물이 자연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학술적, 경관적, 고고학적, 생물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동굴이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위해서는 평창군청 문화재팀의 사전 허가도 받아야 했다. 평창군청은 예보 직원의 탐험기가 유튜브를 통해 소개되면 동굴의 홍보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흔쾌히 허가를 해주었고, 탐험 내내 촬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주었다.

탐험 코스



백룡동굴을 향해 열심히 내달리는 승합차 안. 대원들은 몸은 피곤하지만 끓어오르는 모험심에 차마 눈을 붙이지 못하던 중 Gopro 카메라를 켜고 '백룡동굴' 사행시 놀이도 하며 동굴 입구에 빨리 도착하기만을 기다렸다.

백 : (이은지) 백룡동굴로 갑니다!
룡 : (홍석주) 용감한 저의 모습을 찍고 싶습니다!
동 : (정성학) 동화 같은 풍경도 눈에 담고 싶습니다!
굴 : (조민서) 굴하지 않고 백룡동굴을 탐험하는 저희의 모습 많.관.부 ~

다가올 앞일을 예견이라도 한 듯, 한참을 달린 대원들 앞에는 동화 같은 동강의 풍경이 점차 그 모습을 드러내며 원시의 자연으로 이들을 안내한다.

설레고 기뻐던
백룡동굴과의 만남



'백룡동굴 생태체험학습장'에 도착한 대원들. 차에서 내리자마자 폭폭 찌는 더위에 금세 땀이 흘렀지만 곧 동굴 탐험이 시작된다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지금 바깥 기온이 30도가 넘어요. 그런데 동굴 안 기온은 10도 정도라고 합니다. 빨리 들어가고 싶어요"라며 조민서 주임이 기대감을 내비쳤다. "저는 개인적으로 박쥐를 한번 보고 싶어요. 너무 많이는 말고" 동굴 안에 박쥐가 산다는 말을 들은 이은지 실무역도 개구진 포부를 밝혔다.





오늘의 탐험은 재치 있는 입담의 소유자인 최재훈 가이드가 안내해 줄 예정이다. 평창군청 문화재팀 주무관인 그는 이번 영상 촬영 허가에 도움을 준 실무자이기도 하다. “전국 15개의 개방 동굴 중 유일하게 백룡동굴만 탐험형 동굴로 운영되고 있어요. 동굴 탐험을 위해서는 헬멧, 랜턴, 탐사복, 구조벨트, 장갑, 장화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각자 탈의실에서 복장과 장비 착용 후에 다시 모여주세요.”

가장 먼저 탈의실을 나온 정성학 선임조사원은 “복장과 장비까지 착용하니까 진짜 백룡동굴로 들어가는 게 실감이 나요. 너무 떨리고 설렘니다”라고 하며 살짝 긴장된 모습으로 동굴 탐험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새빨간 탐사복을 입은 서로의 어색한 모습에 찜찜거리며 다시 마주한 대원들. 가이드의 지시에 따라 큰 함성을 한번 지르고는 동굴로 발걸음을 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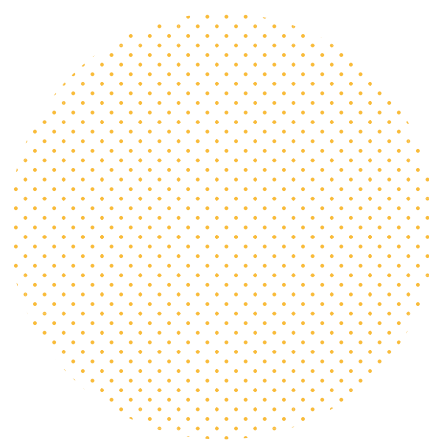
백룡동굴의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까. 동굴의 입구까지는 배를 타고 동강을 거슬러 이동한다. 동굴 입구가 절벽 중간에 있기 때문에 배를 정박한 후 설치된 계단을 올라가야 동굴 입구에 다다를 수 있다. 한 사람씩 조심조심 백룡호에 몸을 실은 탐험대원들. 배가 출발하자 마치 현실과 단절된 미지의 세계로 넘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진 듯 동강과 주변의 절벽이 주는 정취에 흠뻑 취했다. 머지않아 울창한 숲 사이에 설치된 계단에 다다랐고, 대원들은 가파른 계단을 올라 마침내 백룡동굴 입구에 도착했다.

두렵지만 뿌듯했던 백룡동굴 탐험



굳게 닫혀있던 동굴 진입로 문이 열리자 대원들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몸을 숙여 진입로 안으로 향했다. 이제 막 동굴 안으로 진입했을 뿐인데 대원들은 온몸에 전해져오는 서늘한 기운에 ‘와~’하는 감탄사를 연이어 내뿜었다. 신기한 느낌도 잠시, 온통 캄캄한 동굴 벽을 짚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는 대원들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대원들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서로를 챙기며 동굴 안으로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다. “동굴생성물들은 밝은 빛을 피게 되면 그 형상이 조금씩 변해요. 그래서 여기 백룡동굴은 원시 그대로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고자 동굴 내 조명을 일체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대원들을 인솔하던 최재훈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니 불편하기만 했던 이 칠흑의 어둠이 한편으론 고맙게 여겨진다.

동굴 안은 시시각각 변했다. 바닥은 평탄했다가도 이내 비스듬해졌고, 천장은 높았다가도 몸을 움츠려야 될 정도로 낮아졌다. 발이 닿는 곳은 모두 미끄러웠고 낮은 천장에 고개를 숙였다가도 이쯤이면 들어도 되겠지 하는 순간 사정없이 ‘광’하기 일쑤이다. 앞사람이 부딪히는 걸 보고 조심한다고 하나 별 소용이 없다. 동굴 밖에선 거추장스럽고 덩게만 느껴지던 장비들이 지금은 헬멧부터 장화까지 하나하나 그리 소중한 수가 없다. 랜턴 불에 의지한 채로 얼마나 더 들



탐험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프런티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한다는 것이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스스로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어갔을까. 최재훈 가이드의 표정이 의미심장하게 변한다. 국내 모든 등산로에 ‘깔딱고개’가 있다면, 백룡동굴에는 일명 ‘개구멍’이 있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 포복 자세로 기어가야만 통과할 수 있는 이곳에 다다르자 대원들은 ‘올 것이 왔구나’하며 심호흡을 크게 가져간다. 킁킁대며 통과하는 모습을 좋은 각도에서 촬영하고자 장규현 영상PD가 1번 주자로 나섰고 이를 대원들이 뒤따랐다.

좁은 구멍을 무사히 통과한 대원들. 옷과 장갑에 묻은 진흙들을 닦아낼 새도 없이 탐험은 계속 이어진다. 이윽고 마주하게 된 동굴 탐험의 마지막 코스, 일명 ‘로마의 궁전’으로 불리는 넓은 광장이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잠시 모든 조명기기를 끄고 그야말로 단 하나의 빛도 없는 암흑을 느끼며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았다. 억겁의 시간이 만들어낸 원시의 자연 속에 그대로 파묻혀 버린 것만 같은 먹먹함이 밀려온다.

무사히 동굴 탐험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 대원들



고개를 들어도 별빛 하나 보이지 않는 블랙홀 같은 곳. 대원들은 훗날 시간이 지나도 오늘의 이 어둠과 함께 느꼈던 감정들을 기억할 것이다.

동굴 탐험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것들



2시간의 여정을 모두 마친 대원들은 다시 바깥의 익숙한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 백남수 책임원은 “개구멍을 공공거리며 기어갔던 경험은 그야말로 극한체험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랜턴 불빛과 대원들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보낸 경험은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게 동굴 탐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동굴이란 곳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인간의 탐험 욕구를 극도로 자극하는 곳이다. 손목 하나 틀어갈 만한 구멍에서 바람이 새어 나오는 것 하나만으로 그 구멍을 파내는데 평생을 보낸 외국 탐험가의 사례도 있으니 말이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개척의 발걸음은 버겁고 두렵기는 하지만 한편으론 경이롭고 설레는 일이다. 탐험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프런티어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도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그만큼 더 큰 성장과 깨달음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의 가슴 속에 오래도록 남아 스스로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국내 어디서 출발해도 2시간이면 도착! 우리가 몰랐던 충주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찬란한 계절, 여름이다. 황금 휴가의 계절을 맞이하여 계획을 세워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좋지만 부담 없이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충북 충주시로 떠나보면 어떨까. 국내 어디에서도 하루 동안이면 가뿐히 다녀오기 좋은 충주시의 다채로운 매력을 소개한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절경, 수주팔봉

충주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은 바로 충주댐이 있는 충주호일 것이다. 충주호유람선 또는 케이블카를 타고 충주호의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하는 것도 좋겠지만, 좀 더 색다른 자연경관을 찾는다면 충주호 남서쪽에 위치한 ‘수주팔봉(水周八峰)’에 가볼 것을 추천한다. 수주팔봉은 높이가 493m의 바위로 그 모양이 달천(남한강 지류) 위에 마치 여덟 개의 봉우리가 떠오른 것 같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산 위에서 바라보면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펼쳐놓은 듯 절경을 이루고 있으며, 송곳바위·종바위·칼바위 등 창검처럼 세워진 날카로운 바위들이 수직절벽을 이루어 멋진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아름다운 경치로 충주시민들에게는 이미 유명한 곳이었지만, 최근 봉우리 위에 출렁다리를 설치하고 드라마(‘빈센조’) 촬영지로 알려지며 외부 관광객도 크게 늘고 있다. 수주팔봉이 바로 보이는 곳에 글램핑장이 있고 더 가까이 달천변을 따라서는 차박과 노지캠핑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어 자연 속 쉼터로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충주호 남서쪽에 위치한
수주팔봉(水周八峰) 전경



한국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되었던 그곳, 동락전승지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관련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충주가 자랑하는 역사적 ‘그곳’이 있다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역사지식이 어느 정도 있거나 충주를 조금 아는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탄금대를 떠올릴 것이다. 삼국시대 신라의 우륵이 가야금을 타던 곳이자 조선시대에는 임진왜란 첫해에 고니시 장군에 맞서 ‘배수의진(背水之陣)’을 쳤던 신립 장군이 전사한 곳이니 말이다. 하지만 한국전쟁 초기 국군이 후퇴를 거듭하던 중 첫 승리를 거둔 ‘동락전투’가 충주에서 벌어졌으며, 이를 기념하는 ‘동락전승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드물 듯 하다. 동락전승비는 예금보험공사 글로벌교육센터와도 가까운 동락초등학교 인근 가섭산 기슭에 자리하고 있다. 1950년 7월 7일 국군 제6사단 제7연대는 동락초등학교(당시 괴산국민학교)에 수십대의 장갑차와 포를 포진시키고 있던 북한군 선두부대인 15사단 48연대 병력을 궤멸시켰다. 나아가 이 전투에서의 승리는 단순한 첫 승리 그 이상을 넘어 그야말로 전쟁의 판도를 바꾸게 된다. 동락전투 과정에서 획득한 곡사포, 박격포 등의 북한군 무기에서 소련제 표식이 확인되면서 북한의 남침 배후에 소련이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고 이를 기화로 UN 16개국의 참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한편, 동락전투의 승리에 숨은 공신이 있었으니, 동락초등학교에 주둔하고 있던 북한군에게 국군이 철수하고 있다고 안심시킨 후 4km나 떨어져 있던 국군의 매복지를 찾아가 북한군의 동정을 알려 기습의 발판을 마련해 준 김재옥 교사(당시 20세)이다. 당시 국군은 300여 명의 적은 병력 뿐이었고, 북한군은 보병 2,000여 명과 장갑차, 곡사포 등의 규모를 갖추고 있었지만 연승에 도취해 무방비 상태에 있던 북한군을 기습 공격하여 승기를 잡게 되고, 이곳에서 철수했던 국군 3대대가 돌아와 합류 협공하여 북한군의 퇴로를 막아 큰 승리를 거둔다. 당시 김재옥 교사로부터 북한군의 동정을 들었던 김종수 대대장은 전쟁이 끝난 후 ‘전쟁과 여교사’라는 책을 출간하였고(1960년), 이후 1966년에는 임권택 감독이 당대 최고 스타 배우인 김진규



예금보험공사 현충일 헌화



전쟁과 여교사 포스터



김재옥 교사(1931~1963)

와 엄앵란을 내세워 동명의 영화를 제작한 바도 있다. 정부는 김재옥 교사의 이런 공로를 인정하여 2012년 10월 국군의 날에 보국훈장을 추서해 그 공훈을 기렸으며, 동락초등학교는 김재옥 교사 기념관과 충혼탑을 건립하여 호국 충성심을 기리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충주시의 뜻깊은 상생 협약



예금보험공사는 6월 14일 충주시와 충주관광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충주시 신니면에 위치한 글로벌교육센터는 거점으로 충주시와 깊은 유대 관계를 이어오고 있던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6월, 보다 발전적이고 실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충주시와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날 체결한 협약은 △ 충주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사업협력 △ 충주시 체험관광 상생 협력 체계 구축 △ 충주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충주시민 대상 경제금융교육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유재훈 사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충주시와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고, 충주시의 관광 사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조길형 충주시장 또한 “이번 예금보험공사와의 상생 협약을 통해 충주 관광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동반자를 얻게 되어 든든하다”고 전했다.

위 협약의 일환으로 충주시청 관광과에서 직접 추천해준 관광지와 체험지들을 소개한다.

- 장자늬** 잔잔한 호수가 매력적인 곳으로 최근 카누체험장을 오픈하여 더욱 각광을 받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 중앙탑면 장천리 399
- 하늘재** 신라 제8대 아달라왕이 재위 3년(156년)에 북진을 위해 길을 열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고갯길이다.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미륵송계로 614
- 비내섬** 남한강 중상류 충주시 양성면 일원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경관이 뛰어나다.
충청북도 충주시 양성면 조천리 412
- 건지마을** 드라마 ‘눈물의 여왕’ 촬영장소로도 유명한 건지마을은 전국에서 소문난 해님이 장소이다.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 목계술밭** 국도 31호 선상에 위치한 술밭으로 높이 15~20m의 소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 침단산업로 1440
- 석종사** 금봉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조계종 소속의 사찰로, 불설사십이장경, 인천안목 권상과 같은 여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 직동길 271-56



새단장으로 한층 업그레이드한 예금보험공사 글로벌교육센터

예금보험전문가 양성과 해외 예보기구와의 활발한 업무 노하우 공유를 위해 2017년 4월 충주 신니면에 개원한 글로벌교육센터(이하 센터). 글로벌 인재양성과 개인의 창의 및 리더십을 배양하는 금융교육의 요람이 되고자 언제나 열린 공간으로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꾸준한 리뉴얼을 거치는 중이다.



예금보험공사 글로벌교육센터 전경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처로 재탄생



글로벌교육센터 숙소 시설

센터는 서울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휴식시설이라 하겠다. 이에 예보는 교육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휴식시설을 늘리고자 2022년 12월에 숙소(C동)를 증축하였다. 주말에는 임직원 등의 숙소로도 활용되고 있는 센터는 숙박 시설 3개동(A동 : 2인실 15개, B동 : 4인실 5개, C동 : 2인실 9개, 4인실 2개)의 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신규 오픈한 C동 숙소는 축구장을 지나 울창한 나무숲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담하면서도 미적 감각을 살린 외형을 자랑한다. 각 실마다 TV, 전자렌지, 냉장고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공용 휴게실에는 넓은 소파와

커피머신, 제빙기, 세탁시설 등도 마련되어 있으며, 바베큐를 즐길 수도 있어 주말 등 가족 단위의 방문객에게도 안락한 시간을 보내기에 충분한 시설이라 하겠다.

예금보험공사는 교육에 진심

센터의 본질은 교육시설인 만큼 최적의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대강의실, 중강의실, 소강의실(2곳), 세미나실(2곳) 및 강사대기실 등 다양한 공간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최신 전산·영상·음향시설 및 동시통역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 만남과 교류의 장을 통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피트니스클럽 등 체육시설과 옥상층의 하늘정원, 산책·등산로 등도 마련되어 있다.



글로벌교육센터 교육시설, 체육 시설

뜨거운 여름을 지나 9월이 되면 유럽·아시아·아프리카 등 해외 예보기구 직원들을 대상으로 GTP(Global Training Program)가 개최될 예정이다. 자연이 숨 쉬는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이들의 열정과 에너지가 무한 충전될 수 있기를 염원한다.

공공기관 속 미술관 “예보갤러리”

- 두 번째 이야기: 서예(書藝)편

2022년 겨울까지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사옥 내부는 ‘코로나19’의 잔재가 만연해 활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삭막한 표어와 경고문이 여기저기 붙어있었고, 직원들 사이에는 투명 가림판들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었다. 팬데믹의 그늘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기 위해 사옥을 새로운 환경으로 탈바꿈할 필요가 절실한 때였다. 이에 예보는 사옥을 부드럽고 격조있는 공간으로 바꿔줄 다양한 미술품들을 곳곳에 전시하여 침체된 조직의 분위기를 일신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예보갤러리’ 그 두 번째 이야기로, 지난호(제53호) 미술품 소개에 이어 멋진 서예작품들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초대한다.



서예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예보의 멋진 작품들

서예의 다채로운 매력 속으로

예보 본사에는 옛 선현들의 가르침과 영감을 주는 서예작품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10층과 15층에 위치한 여러 회의실의 한쪽 벽면에는 한자로 크게 휘갈겨 쓴 글귀들이 장엄한 위용을 뽐내고 있다. 조용히 홀로 이 작품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 뜻은 잘 몰라도 액자 속 서풍(書風)에서 느껴지는 기품과 박력이 오롯이 전해져온다. 서예라는 예술이 지닌 힘이 어렵듯이 느껴지기 시작한다.

서예(書藝)란 말 그대로 문자(글)를 통해 작가의 감정과 정신세계를 먹과 붓으로 나타내는 예술이다. 먼 과거에는 서예가 귀족의 전유물이었다. 문자를 알고 붓을 친다는 것은 곧 권력을 쥐는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오늘에 이르러서는 문자보다는 사진이, 사진보다는 영상이 더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영상도 길이가 짧은 영상이 더 각광받는 이른바 ‘숏츠 시대’인데다 이제는 사람이 도맡아왔던 분야를 대신하는 AI까지 등장하였다. 그럼에도 서예가 주는 느낌의 미학, 좋은 글귀가 주는 감동 때문일까. 서예는 예술의 한 장르로서 여전히 독보적인 존재가치를 유지해 오고 있다.



서예의 매력은 문자만 보고도 ‘글쓴이의 힘’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는 데 있다. 같은 글귀라도 작가의 서체나 표현방법에 따라 보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이 된다. 오늘날 ‘라이브 서예 퍼포먼스(갈라쇼)’가 새로운 인기예술 장르로 자리 잡게 된 것도 글자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 써 내려가는 작가의 모습에 보는 이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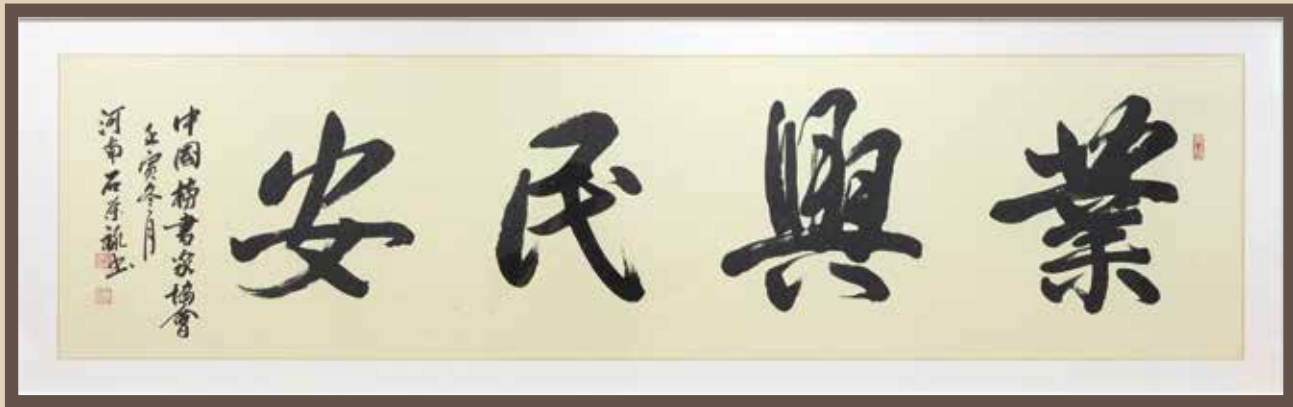
서예의 또 다른 매력은 ‘문자의 아름다움’ 자체에 있다. 흘러 쓰는 듯 하지만 미적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문자는 마치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시각적인 쾌감을 선사한다. 서예가 한자를 대상으로 하여 시작된 것도 상형문자가 지닌 조형적 요소 때문으로, 한자 문화권 안에서는 일찍이 한자를 예술적 감상의 대상으로도 삼아 왔다.

끝으로 매력 하나 더. 서예는 ‘좋은 글’을 남긴다. 좋은 글에는 작가의 철학과 가치관 뿐만 아니라 당대의 문화와 역사도 담겨 있다. 그 글귀가 후세에도 울림을 준다면 그것으로 시대와 문화를 잇는 역할도 하는 것이다.

주요작품 — 설명

좋은 글을 남겼다는데 이 글이 무슨 뜻인지 모르고 넘어가면 작가가 무척이나
섭섭하지 않을까. 피곤한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좋은 기운을 북돋워줄 것만 같은
4점의 서예작품에 담긴 뜻을 지금부터 알아본다.

〈10층 안민실〉



① 業興民安 (업흥민안)

작품설명 “하는 일이 흥하니 백성이 편안해진다”라는 뜻으로, 국가나
정부가 행하는 정치·경제·교육 등 각종 제도나 사업 등이 제대로 효과
를 발휘하고 성공을 거두게 되면, 결국 국민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안정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예보 역시 예금보험제도 및 금융안정을 위한
기구로서의 중요한 업(業)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예금자들의 행복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예보는 이러한 염원을 담아 10층 내 임원진 회의실
을 ‘안민실(安民室)’로 명명하고, 최고 의사결정 시마다 예금자의 안정과
평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다.

② 金分輕重皆有道(금분경중개유도) 融成方圓終爲民(융성방원종위민)

작품설명 “금붙이는 가볍든 무겁든 모두 그 쓸모가 있다. 그것들이 녹
으면 사각형도 원형도 될 수 있으나 결국 백성을 위해 쓰여지게 되는 것
이다”라는 뜻이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형태, 모양이 어떠한 각자
의 역할과 가치를 지니며, 시간이 흘러 변화하여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
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지닌 쓰임은 남아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돈(예
금)이란 많은 적든 모두 소중히 쓸 곳이 있고, 이 돈이 모여 큰돈이 되면
공장을 지을 수도 길을 닦을 수도 있으니 결국 모두 국민을 위해 쓰이게
된다. 예보도 국민들의 예금을 소홀히 다루지 않고 잘 보호해야 한다는
암시를 주는 듯 하다.

〈10층 접견실〉



〈10층 집무실〉



③ 虛心竹有低頭葉(허심죽유저두엽) 傲骨梅無仰面花(오골매무양면화)

작품설명 “가운데가 텅빈 대나무는 잎끝을 내리고, 강건한 매화
는 하늘을 보는 꽃이 없네”라는 뜻으로, ‘겸손’과 ‘절개’를 강조하
는 글귀이다. 대나무의 특성은 속이 비어 있고, 잎의 끝은 항상 아
래를 향하고 있어 겸허한 품성을 나타낸다. 그리고 매화는 그 꽃
이 위를 바라보며 자라지 않아 세속의 권세에 놀리거나 아부하지
않는 기개와 절개를 나타낸다.

이 글귀의 지은이는 중국 청나라 시대 화가이자 문학가인 정섭
(鄭燮, 1693~1765)으로, 그의 호를 딴 정판교(板橋)란 이름으로 유
명한 자이다. 그는 백성을 사랑한 청렴하고 공정한 관료였으며,
관직을 그만두고는 양주(楊州)에서 자유롭고 호방하게 살았다.
정판교가 한 말 중 중국인이 가훈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있는
데, 바로 ‘난득호도(難得糊塗)’이다. 직역하면 “바보가 되기란 참
어려운 일이다”라는 뜻으로, 자기를 낮추고 남에게 모자란 듯 보
이는 것이 진짜 현명한 처세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중국에서는 정판교를 주제로 한 드라마 〈호도
현령 정판교〉가 제작되어 방영되었다. 중국인들이 그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드라마는 국내
에서도 OTT 서비스인 ‘왓챠’를 통해 방영되기도 했다.



드라마
〈호도현령 정판교〉포스터

〈15층 비상임이사실〉



④ 善緣(선연) – 爲人皆善緣 (위인개선연) 福同享(복동향)

작품설명 “사람들 모두 좋은 인연을 가지니 이로
써 복을 함께 누리다”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중요
하게 다루는 ‘인연(因緣)’에 관한 글귀이다. 불교
에서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관계는 인
연에 의해 결정되며, 이 인연은 우리 스스로 만들
고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한다. 좋은 인연을 통해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만난 예보인들 모두에게 전해지기를 염원한다.

美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알아보기

예금보험공사는 2007년에 美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교류를 이어왔다. 최근 공사가 '예보3.0'을 추진하는 만큼, 한·미 양국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은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할 수 있다. 본 기사에서는 공사의 협력 파트너인 SIPC의 역사와 기능을 소개하고, 그간 공사와의 교류 이력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예금보험공사 국제협력실



1.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SIPC) 출범

(‘23년 말 기준)



미국 증권투자자보호공사
(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 **설립** : 1970년
- **부보금융회사** : 3,297개 증권사(Broker-dealer)
- **지배구조** :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7인으로 구성된 이사회(Board of Director)를 두고 있음
- **보호한도** : \$50만(예탁금 : \$25만)
- 공사-SIPC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07.10월~)

미국의 1960년대 말 증권업권의 위기는 전혀 예상치 못한 원인으로 발생했다. 60년대 말 증권업계의 호황으로 증권 거래는 폭발적으로 늘었으나, 그에 따른 업무의 전산화가 따라가지 못해 증권 거래를 빠르게 처리할 수 없었다. 증권사 상당수는 기록오류로 투자자 대상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으며, 이러한 혼란을 틈탄 고객자산 유용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후일 “월스트리트 서류 위기(Wall Street Paperwork Crisis)”로 일컬어지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美의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1970년 12월 30일에 「美증권투자자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美증권투자자보호법」에 따라 美 증권투자자보호공사(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 SIPC)가 설립되었다.

2.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여정

SIPC는 1971년에 워싱턴D.C. 소재 美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건물에서 출범하였다. SIPC는 「美증권투자자보호법」에 따라 증권사 등의 파산에 따른 투자자 손실을 5만 달러 한도(예탁금 : 2만 달러) 내에서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증권사 분담금 및 정부자금 등을 활용하여 77.6백만 달러 규모의 기금을 신속하게 조성하였다.

SIPC는 월스트리트 서류 위기의 여진 속에서 증권시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나섰다. 1971년부터 1973년까지 94개의 증권사가 청산절차에 돌입하였으며, 투자자 대상으로 2억 달러 이상의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SIPC는 1978년 「美증권투자자보호법」 개정으로 투자자보호 제도를 크게 강화하였다. 투자자 보호한도가 10만 달러(예탁금 : 4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부실 증권사의 고객 계정의 포괄적 계약이전(Bulk Transfer)이 허용되었다. 또한, 무엇보다도 법령 실행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획득한 것은 큰 수확이었다.

SIPC의 투자자보호제도가 1980년대에 본 궤도에 오르면서 미국 증권시장의 안정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1987년 10월 19일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영화)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Dow Jones Industrial Average)가 508포인트(22.6%) 급락한 사건인 “블랙먼데이(Black Monday)”를 겪고도, 단 1개의 증권사(H.B. Shaine & Co.)만이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SIPC의 새로운 투자자보호제도의 유효성이 입증된 순간이었다.

1990년대 미국은 경기 호황의 시기였다. 경기 호황에 힘입어 주식시장도 크게 성장하였으나, 주식시장 활황을 악용한 금융사기도 범람하던 시대였다. 당대의 대표적인 금융사기범으로는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The Wolf of Wall Street)”의 주인공으로 잘 알려진 조던 벨포트(Jordan Belfort)가 있다. SIPC는 1990년대에 걸쳐 조던 벨포트와 그가 세운 스트라톤 오크몬트(Stratton Oakmont, Inc.)의 투자자 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사기 피해자를 구제하는데 여력을 쏟았다.

SIPC는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중 리만브라더스(Lehman Brothers Inc.)의 파산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증권사 부실사태에 직면했다. SIPC는 美재무부 및 美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조 하에 약 920억 달러 규모의 고객 자산 계약이전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나스닥(NASDAQ) 위원장까지 역임한 금융업계의 거물인 버나드 L. 메이도프(Bernard L. Madoff)의 폰지사기가 드러난 것이다. 메이도프의 사기 행각으로 전 세계적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자 손실이 발생했으며, SIPC는 미국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재차 보상금 지급에 나서야 했다.



리먼브라더스 부실사태(출처 : Keystone)

“혼란 속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이자 무질서한
금번 파산사태는 금융위기를 가속했으며,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시켰다.”

— 제임스 M. 펙(James M. Peck) 리먼브라더스 관할 파산법원 판사 —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도드-프랭크법 승인

SIPC는 2010년대부터 투자자보호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10년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으로 SIPC의 예탁금 보상 한도가 25만 달러로 증액되었으며, 美 재무부 긴급 차입 한도도 25억 달러로 상향 조정되었다. 2018년에는 온라인 보상금 지급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0년에는 온라인 제출서류 접수 및 분담금 납부 등을 위한 증권사 전용 포털을 구축했다. SIPC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오늘날에도 미국 투자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3. SIPC의 투자자보호제도

SIPC는 증권사 등의 파산에 따라 고객 계정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유가증권·현금의 손실분을 50만 달러(예탁금 : 25만 달러)



SIPC 안내 이미지(출처 : SIPC 홈페이지)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SIPC는 「美증권거래법」 Section 15(b)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증권사(Broker-Dealer) 등을 회원으로 두고 있으며, 회원 증권사의 고객을 보호한다.

SIPC는 증권사의 청산에도 관여하고 있다. 파산법원이 관재인(Trustee)을 선임하면, SIPC는 관재인의 업무수행을 감독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대형 증권사의 부실이 발생하면 美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청산인(Receiver)으로 지명되고, SIPC가 관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다. SIPC는 설립일로부터 2023년까지 총 330건의 증권사 청산을 담당하였다.

SIPC는 투자자 대상 보상금 지급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고, 회원 증권사로부터 분담금을 납부받고 있다. 회원 증권사는 매년 순영업이익의 0.15% 만금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SIPC 기금 잔액은 44.7억 달러이다(목표적립액 : 50억 달러).

4. 공사와의 교류·협력 관계

공사는 2007년 10월에 SIPC와 최초로 정보공유 및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래 오랜 교류 관계를 이어왔다. 공사 임직원은 SIPC를 수차례 방문하여 미국 투자자보호제도 운영 사례를 조사하였으며, 한국의 투자자보호제도 개선에 참고해 왔다.

공사와 SIPC의 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 것은 유재훈 사장의 취임 이후였다. 공사가 ‘예보3.0’의 일환으로 금융계약자보호기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해외 투자자보호기구

등과의 협력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다. 상술하자면 디지털 금융 및 신종 금융상품 등 투자자보호제도 관련 최신 국제 논의를 파악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국경간 이슈 관련 협업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특히, 유재훈 사장은 2023년 9월에 조세핀 왕(Josephine Wang) SIPC 사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예보3.0’ 및 미국 실리콘밸리뱅크(SVB) 부실사태 이후 공사의 발전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SIPC의 조세핀 왕 사장은 공사의 위기대응훈련 등에 큰 관심을 표명하고, 앞으로 투자자보호기구(ICS; Investor Compensation Schemes) 총회 및 워킹그룹 활동을 통해 투자자보호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

이후 최근, 유재훈 사장은 2024년 5월 전 세계 주요 투자자보호기구들의 모임인 ICS 총회 및 워킹그룹 회의에 참가하여 동 그룹 정식회원으로서의 활동을 개시하였으며, 공사는 미국 SIPC를 비롯하여 총회를 주도하는 캐나다 투자자보호기구(CIPF), 일본 투자자보호기금(JIPF), 아일랜드 투자자보호기구(ICCL) 등과의 면담을 통해 각국 투자자보호제도 운영 사례 및 최신 현안을 공유하며 ICS 일원으로서의 입지를 다졌다.

조세핀 왕 SIPC 사장과의 면담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투자자보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정보공유 협조를 요청하였고,



유재훈 사장과 조세핀 왕 SIPC 사장 면담(2023년 9월)

내년에 공사가 자본시장과 관련하여 개최할 ‘자본시장 관련 국제심포지엄’에 초청하는 등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 아울러, 공사는 다양한 투자자보호기구와의 면담에서 아태지역 투자자보호기구 모임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많은 투자자보호기구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공사는 내년 ‘자본시장 관련 국제심포지엄’에서 비유럽권 투자자보호기구들의 모임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공사는 ‘지정학적 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패널토론 세션에 초청되어 공사의 위기 대응 체계에 대해 발표하였다. 향후 공사는 연례적으로 개최되는 ICS 총회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국제 무대에서 투자자보호제도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ICS 워킹그룹 투자자보호기구 단체사진 (2024년 5월)



‘지정학적 위기 대응’ 관련 유재훈 사장 발표(2024년 5월)

“예보와 함께 더 빛나는 미래로 향하겠습니다” 신임 임원 4인의 비전과 포부

예금보험공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임원 4인방이 새롭게 취임했다. 조주연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방준성 조사국장, 신두식 이사, 유형철 기금관리단장이 그들이다. 이들 모두는 취임과 동시에 다양한 경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직의 발전과 직원들의 성장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더불어 예금보험공사의 핵심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다짐도 내비쳤다. 예금보험공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신임 임원 4인의 힘찬 포부를 함께 들어보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조주연
본부장

검찰에서 예보로의 새로운 도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에 새로운 리더가 부임했다. 21년간 검찰에서 다양한 범죄를 수사하며 쌓은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직무 수행으로 인정받아 온 조주연 본부장이 그 주인공이다.

과거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법무부 국제형사과, 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포항지청장을 거치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온 그는 늘 예보를 친숙하게 여겨왔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예보와의 인연이 깊어졌다고 전했다.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부실과 관련된 책임자들을 조사하고, 공적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보와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조주연 본부장은 예보의 역할과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있을 때부터 예보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예보의 직원들이 검찰에 파견되어 함께 일하기도 했고요. 당시에 예보 직원들이 보여준 전문성과 헌신적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이제 예보에서 함께 일하게 된 만큼 예보와 검찰, 양 기관 간의 협력을 원활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보인이여, 자긍심을 지닙시다’

조주연 본부장은 그간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보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됐다.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으로서 부실 금융기관의 책임을 규명하고, 해외에 숨겨진 자산을 환수하는 등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나가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중직을 맡게 된 그는 “예보의 핵심 가치인 국민신뢰, 전문성, 공정, 혁신을 더욱 강화하고, 예보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예보 직원들에게 “우리가 퍼블릭 섹터 안에서 개인적 사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것에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우리는 늘 준비된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금융권 위기가 발생하여 은행 파산 같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믿고 평소에도 늘 준비된 자세로 업무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금융권 위기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지니고, 늘 준비된 자세로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팀워크를 바탕으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예보의 성장을 함께 이뤄냅시다”



방준성
조사국장

근무해 보고 싶었던 곳, 예보

“우리나라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영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서울남부지검, 광주지검, 대구지검, 성남지청 등에서 기업범죄와 공직비리 등을 수사하는 특별수사 전담검사로 근무해온 방준성 조사국장. 그는 인터뷰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의 핵심 기관으로 불리는 예보에서 일하게 된 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그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할 당시 파견을 나온 예보 직원과 함께 일했던 적이 있었다며, 그때 접했던 예보 직원의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면서 파견을 나온 예보 직원과 함께 여러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그 직원을 통해 예보가 검찰처럼 공적 영역에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예보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도 알 수 있었고요. 그때부터 나중에 기회가 생긴다면 반대로 제가 예보에 파견을 나가 근무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뛰어난 인재가 많은 예보’에서 근무해보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8년이 지나 이제 현실이 되었다. 바람을 현실로 이룬 지금 그의 생각이 여전한지 궁금했다.

“물론이죠. 여전합니다. 이곳에서 실제로 근무해 보니 예보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모여 ‘시장원리에 충실한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라는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제 저도 예보의 구성원이

되었으니 예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보의 성장을 위한 세 가지 조건, ‘팀워크, 소통, 배려’

예보의 구성원이 되어 무척 기쁘다는 방준성 조사국장은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조사국장으로서 조사국 업무가 기존과 같이 적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뿐만 아니라, 검찰의 자금 추적, 가상자산 추적,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 등이 예보에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 그는 예보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배려, 그리고 팀워크가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예보는 인적자원이 훌륭한 곳입니다. 이 훌륭한 자원을 바탕으로 예보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소통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게 된다면 지금보다 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저 또한 탄탄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갖추어 예보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직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했다는 방준성 조사국장. 그는 마지막으로 “예보에 대한 존중심을 가지고 예보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노력하겠다는 다짐만은 꼭 전하고 싶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건강하고 행복한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예보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두식
이사

후배에게 도움이 되는 선배가 될 것

신두식 이사는 올해 6월 예보 상임이사로 취임했다. 그는 인사지원부장, 사회적가치경영부장, 금관리실장 등 다양한 부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오며 조직 내에서 많은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다. 더위에 약한데 앞으로 벡타이를 자주 매야 한다는 생각에 걱정부터 앞선다는 그는 “상임이사가 되니 기나긴 조직 생활을 되돌아보며 입사할 때 시절이 떠올랐다”고 말문을 열었다.

“2002년 재직하던 은행을 그만두고 공사에 입사할 당시, 합격 발표 예정일 며칠 전부터 홈페이지를 수시로 드나들며 발표를 기다렸던 때가 떠오릅니다. 지금도 당시의 절실함을 잊지 않으려고 종종 그때 받은 합격통지서와 입사 지원 서류 등을 서랍에서 꺼내 보며 초심을 다잡기도 합니다. 이사로 취임하고 나니, 입사 후 공적자금 지원은 행에 대한 MOU 관리 업무, 경영평가와 청렴도평가 등 각종 대외 평가 업무, 인사지원부에서 노동조합과의 줄다리기 등 그동안 맡아왔던 자리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는 요즘 어떻게 하면 후배 직원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MZ 세대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미래의 예보를 주도할 MZ 세대가 훌륭한 인재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최근 MZ 세대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꼰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저는 꼰대를 세대로 규정하기보다는 성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꼰대 세대가 MZ 세대와 소통하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함께

MZ 세대도 꼰대 세대의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본다면 소통이 더 원활해지지 않을까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나’를 지키는 일

신두식 이사는 MZ 세대와의 소통에 관한 이야기에 이어 그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그가 이야기하는 중요한 가치는 바로 ‘건강한 마음’이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집중하며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상 속 스트레스를 적절한 수준으로 관리하며 건강까지 유지하는 방법 중 한 가지로 ‘생활 속의 건기’를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세요. 건기를 통해 마음이 맑아지고 머릿속이 정리되는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직원들에게 ‘미래를 위한 큰 꿈을 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이 있는 파랑새를 찾아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함께 느끼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스스로가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실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점을 찾는 것에만 너무 몰두하다 보면 현재 자신의 수준에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을 잊어버리고 불행하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네 잎 클로버를 찾기 위해 행복을 주는 세 잎 클로버를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예보를 만들겠습니다”



유형철
기금관리단장

책임감과 자부심으로 준비하는 예보의 미래

지난 6월, 기금관리단장으로 유형철 단장이 새롭게 임명됐다. 유형철 단장은 SIF정리부, 은행리스크관리부, 홍보실, 기금운용실 등 여러 부서를 거치면서 다양한 업무를 담당해왔다. 유형철 단장은 과거 홍보실에서 5급, 4급 직원으로서 근무했었고, 2020년과 2021년에는 홍보실장으로서 ‘예보광장’ 제작을 총괄하기도 했었는데 예보광장의 인터뷰 대상이 되어 영광스럽다고 예보광장과 인연을 강조했다.

유형철 단장은 인터뷰 자리를 빌어 “2026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종료”와 “2027년 상환기금 종료” 등 큰 변화를 앞둔 시기에 기금관리단장으로 임명되어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의 변화에 잘 대비하여 예보가 지금보다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취임 소감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그동안 수행했던 다양한 업무 중에서 가장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던 업무로는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의 매각을 꼽았다. “매각 당시 매수자들로 하여금 높은 가격을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실사 기간을 짧게 주고 문제가 있으면 소송을 통해 사후 정산할 수 있는 매각 구조를 설계했어요. 그 결과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높은 가격에 매각할 수 있었죠. 특히 경남은행의 경우 매각 후 매수자인 BNK금융지주가 제기한 사후정산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까지 갔는데,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당시 판단이 옳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제가 매각을 완료하고 부서를 떠난 뒤에 사후 소송을 담당했던 직원분들께 정말 감사하죠.”

“개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팀플레이로 예보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시다”

유형철 단장은 직원들에게 “회사 생활에서는 개인 존중을 바탕으로 한 팀플레이가 중요해요. 팀이나 부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회사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내 함께 협업하고 노력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정을 배려해 주는 가운데 팀 전체가 조화롭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 부서가 협력하면서 회사 전체의 목표와 이익을 고려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기금 체계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예보가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보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2023년 하반기 예금보험공사 신입직원을 —— 소개합니다!

Q&A

QUESTION

- 01 본인 업무 소개 및 소감은?
[재미있거나 힘든 점]
- 02 나의 취업 꿀팁은?



Q&A



인사지원부 강주은

- 01 A_ 저는 인재개발팀에서 현재 국내외 학술연수의 실시 및 비용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독서 연수를 담당하면서 공사의 여러 사람을 만날 수 있어 하루하루 재미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 02 A_ 면접은 너무 외운 것만, 준비한 것만 말하려고 하기보다 앞에 계신 면접관들과 대화한다는 생각으로 임하면 긴장도 풀리고, 면접관분들께도 더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부 김민준

- 01 A_ 저는 조직예산팀에서 조직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업무들이어서 책임감과 흥미를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 02 A_ 준비 기간이 짧더라도 부족한 시간에 마음 졸이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간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보험교육실 김지환

- 01 A_ 예보 아카데미 업무를 수행하며 어깨너머로 파산과 관련된 업무를 배우고 있으며, 금융교육 콘텐츠 기획·운영 업무를 통해 영상 기획 및 촬영이라는 흔히 접할 수 없는 업무를 경험한 것이 좋습니다.
- 02 A_ 저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 후 배수가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면접시험 또한 필기시험 못지 않게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것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IT전략운영부 김명수

- 01 A_ 저는 인프라관리팀에서 공사 내 서버와 스토리지를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인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성상 공부하고 알아야 할 양이 방대하여 아직도 적응하는 중이지만 새롭게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들이 많이 흥미롭습니다.
- 02 A_ 예금보험공사 면접 준비를 잘하려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활용, 예금보험공사 SNS 기사단 글 및 예금보험공사 블로그 글을 읽어보며 최근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슈 등을 살펴보세요.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금보호정책부 김정식



- 01 A_ 저는 정책기획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팀에 있으면서 느끼는 건 수준 높은 보고서가 하루에도 몇 개씩 생산이 되면서, 하루하루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 02 A_ 필기의 경우 NCS는 매일매일 꾸준히 한 묶음씩 풀었습니다. 반복해서 같은 문제들을 풀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들을 다양하게 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수기획부 동윤협

- 01 A_ 파산재단이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낯선 용어가 많아 어려움이 있지만, 차근차근 배우며 성장하겠습니다.
- 02 A_ 먼저 필기의 경우, 해당 기관의 기출 문제를 접하고 공부 방향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며, 면접의 경우는 자신의 생각을 짧게 정리하는 것과 묻는 질문에 천천히 간결하게 답변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기금관리실 류영주

- 01 A_ 금융회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수납하는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는 신고납부제로 부모 금융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액을 납부하며 저희 팀은 이를 근거로 사후 점검 업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 02 A_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 긴장을 푸는 연습을 하며 자신감이 가장 최선의 대비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가적으로 2차 면접 당시에는 임원분들 사진을 참고하여 모의 면접을 진행한 것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박주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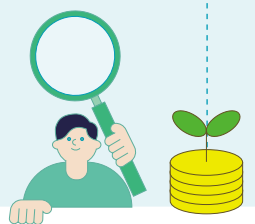


- 01 A_ 저는 경영분석팀에서 통계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엑셀을 많이 보다보니 눈이 피곤하고 통계에서 숫자를 다룬다 보니 정확성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나, 부서에서 통계가 활용되는 것을 보면 보람을 느낍니다.
- 02 A_ 필기준비는 공인회계사 시험문제로 대비하였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 스터디를 활용했는데 조원들끼리 모의로 해본 인성 면접 및 PT 발표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지원부 신정민

- 01 A_ 저는 인사팀에서 채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취업준비생의 입장에서 채용담당자가 되니 신기하기도 하고 지원자들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며 일할 수 있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 02 A_ 필기시험 준비에서 전공 필기 경제학의 경우 연습책을 반복 풀이해서 빠르게 푸는 연습을 했고, 남은 시간에는 경제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면접 준비를 했는데 이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채권관리부 명수민

- 01 A_ 저는 채무조정팀에서 채무조정기준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를 감면해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숙지해야 하고 채무자들을 직접 상대할 일도 발생하다 보니 힘든 점이 있지만,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낍니다!
- 02 A_ 일기를 매일 썼던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일기를 써보니 같은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지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기금운용실 박재하

- 01 A_ 처음에는 저의 지식으로 '운용기획팀 업무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팀원들이 많이 도와주어 점차 적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사의 기금을 운용하다 보니 "이렇게 큰 자금을 언제 보내보겠어?"라는 생각도 들며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02 A_ 공부는 꾸준히 다양하게 해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강사가 만든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았던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SIFI정리부 유승준

- 01 A_ 대형은행 부실정리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용어와 시스템, 체계 등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는 것보다 못하는 것이 훨씬 많아 걱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친절히 차근차근 알려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02 A_ 전공 필기에 투자를 많이 해두는 게 좋습니다. NCS는 공부를 한다고 하여 시간을 투자한 만큼의 효율을 보지 못 했던 반면, 전공 필기는 투자한 만큼 그대로의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죠.

Q&A



안전경영실 유정미

- 01 **A** '예금보험공사의 안전 알림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안전조성의 날을 통해 전 직원에게 안전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02 **A** 저만의 취업 꿀팁은 인사말에서부터 밝고 긍정적인 면접 태도와 추후 업무에 대한 성실함을 면접관님께 잘 전달해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T전략운영부 이라희

- 01 **A** 저는 현재 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차세대 IT 구축 사업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업무인 만큼 막막할 때도 많지만, 팀장님과 팀원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 02 **A** 준비할 내용이 많아 막막하더라도, 차근차근 하나씩 하면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보험리스크관리부 임원빈



- 01 **A** 보험차등운영팀에서 보험업권 차등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삶에 꼭 필요한 금융서비스인 보험을 업무로써 수행하며 전문성을 기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요즘 회사생활이 즐겁습니다.
- 02 **A** 공사에 대한 애정을 적극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사 인턴, SNS기자단, 국민참여단,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우수상 수상 등의 경험을 면접관분들께 말씀드리며 입사 의지를 적극 표현했습니다.



안전경영실 정승리



- 01 **A** 민방위 업무 담당자로서 국방부와 민방위대 등 다양한 외부기관과 연락하여 다소 특색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렵지만 다양한 훈련 용어를 익히며 재미있게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 02 **A** 필기가 끝난 줄 알았던 취업 준비는 면접이 시작이었습니다. 주기적으로 금융시장의 동향을 알아두고 시사 상식들은 꾸준히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이용정



- 01 **A** 저는 저축은행리스크관리부 내 저축은행차등운영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 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저축은행업권에 대해서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 02 **A** 저의 취업 꿀팁은 필기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것입니다. 필기시험을 잘 준비해서 응시했기 때문에, 이후 면접 전형을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보호실 이종범



- 01 **A** 데이터 관리팀에서 공공데이터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부서별로 관리하는 데이터와 수행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 공사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 02 **A** 논술, PT 면접 등은 취준생에게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어둠 속을 걷듯 하다 보면 결국 광명이 비추고, 뒤를 돌아보면 평탄한 길과 주저앉은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국제협력실 최자인



- 01 **A** 저는 다자협력팀에서 세계은행 및 아시아개발은행, 국제기구(ADI) 등과의 교류 협력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대만으로 첫 출장을 다녀왔는데, 처음으로 국제회의를 참관해볼 수 있어서 신기하고 재미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 02 **A** 인턴 경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예보 인턴을 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꼭 예보가 아니라도 어디서든 업무 경험을 해보는 것은 자소서 작성하거나 면접 준비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금보험교육실 조세영



- 01 **A** 금융교육팀 운영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전문강사 50분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복지센터, 군대, 유관기관 등에서 들어오는 금융교육 강의를 진행하는 것이 보람차며 재밌습니다.
- 02 **A** 회계사 2차 연습서에 대한 꼼꼼한 공부와 면접스터디를 활용하여 PT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금융정리부 이종찬

- 01 **A** 은행금투정리팀에서 출자금회사 지분 매각 및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보에서 근무하는 것을 그토록 바라 왔는데, 그 바람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 02 **A** 신년사, 창립기념사 등을 참고해 공사의 미래 지향점을 숙지하고, 그러한 지향점으로 나아감에 있어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정리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은행리스크관리부 이한준

- 01 **A** 저는 차등리스크기획팀에서 금융리스크리뷰 발간, 회의체 운영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할 때부터 가장 오고 싶었던 부서였는데, 이곳에 배치받아 업무를 하게 되어 행복합니다!
- 02 **A**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회독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과목별로 저만의 요약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양이 상당히 많았지만, 완벽하게 숙지한 내용은 지워가면서 마지막에는 5페이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었습니다.



IT전략운영부 홍석주



- 01 **A** 업무시스템운영팀에서 임직원분들이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긴장을 많이 하고 낮도 가리지만 빨리 적응하여 IT적인 요소를 비전공자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직원이 되고 싶습니다.
- 02 **A** 면접관의 입장에서 어떤 지원자를 뽑을까 계속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에 대한 해답은 인상이라 생각해서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최대한 웃으면서 대답했던 것이 주효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빛나는 KDIC 직원들

우즈베키스탄
강봉준 팀장

인도네시아
김우찬 차장

스위스
이승후 차장

예보 해외파견직원 3인의 일상

머나먼 이국 땅에서 전 세계의 예금보험 기구들을 연결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해외 파견 직원들. 그곳에서의 생활은 어떨까? 새로운 환경에서의 생활과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이들의 평범한 일상을 보았다.

GLOBAL

우즈베키스탄
강봉준 팀장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강봉준 팀장이
제작한 현지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금융 시스템 발전을 위해

저는 예금보험공사와 우즈베키스탄 예보기구 간의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파견되어, 주로 우즈베키스탄의 금융 시스템 발전을 위해 예금보호제도 개선과 관련된 기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마르칸트 국제기술대에서 강의를 맡아 학생들에게 금융 및 보험 분야에서의 전문 지식을 전달 하기도 합니다.

퇴근 후에는 다채로운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데요. 종교 활동과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와 동영상 시청을 통해 자기 계발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담은 듯 다른 우즈베키스탄

식사는 주로 현지 직원들과 함께하는데, 점심시간에는 그들이 추천하는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특별히 즐겨 찾는 식당이 있는 것은 아니고, 혼자 식사할 때는 사무실 근처의 Soy라는 식당이나 패스트푸드점에서 간단히 해결하는 편입니다. 길에서 말을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볼 때면 외국에 나와 있는 것이 실감이 나지만, 평소에는 한국 생활과 다른 점을 크게 느끼진 못합니다. 다만, 한국의 잘 갖추어진 기반시설에 기인한 편리한 생활에 익숙한 터라



가끔씩 정전이 발생하거나 핸드폰 데이터 사용이 하루 종일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만족하며 사는 삶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영어 사용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소통은 핸드폰 번역기를 사용하여 진행되며, 이로 인해 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의료 시스템이나 서비스 질이 낮아 병원 방문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도 혼자 생활하는 등 퇴근 이후에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저에게는 현재 한국 생활이 많이 그리운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도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나

름 만족을 찾아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곳에서의 경험과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금융 분야에서의 경력도 한층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김우찬 차장이
제작한 현지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김우찬 차장

인도네시아와 예보의 상호 인력 교류에 기여

2023년 예금보험공사와 인도네시아 예보기구가 상호 인력교류를 시작하면서 저는 '부실보험사 정리 및 보험사 상시감시' 전문가로 파견되었습니다. 제 경력과 그린손보 정리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부실보험사 정리 절차와 사례, 다른 업권과의 정리 방식 비교 등을 인도네시아 예보의 Insurance group 직원들에게 프리젠테이션으로 전달하며 거의 매주 1회씩 직원들의 의문 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추가로 5월부터는 은행감시, 위기사항 대응, 부실정리계획 등 다양한 부서에서 한 달씩 로테이션 근무를 하며 공사에서의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지 소규모 저축은행의 정리 현장 답사와 Surabaya 지사 개장식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도네시아 예보의 일원으로서도 많은 경험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현지인들의 일상 속으로

숙소는 회사에서 약 6km 떨어진 곳에 아파트를 구했지만, 자카르타의 교통체증으로 인해 매우 불편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에는 택시를 잡기도 어려워 종종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평일 퇴근 후 외출하기가 어려워졌고, 주로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근처 쇼핑몰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는 하는데요. 자카르타는 보행 도로와 녹지 공간이 부족해 러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말에는 종종 전철을 타고 인근 도시를 방문하며 현지인들이 많이 모이는 식당에서 음식을 즐기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다문화적 적응과 성장

인도네시아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나 여러 가지로 적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일단 현지 음식은 짜고 매콤하며 기름진 것이 많았는데요. 아쉽게도 제 입맛에는 맞지 않아 주로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서 집에서 간단히 요리하거나 회사에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저는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천이지만, 인도네시아는 무슬림이 대부분인 나라여서 현지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동료나 친구들과 함께 모스크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라마단 기간 동안 일출 전에 아침을 먹고 일몰 후에 저녁을 먹는 단식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종교적 이유보다는 문화적 이해를 위한 경험이었는데요. 몸과 정신적으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이승후 차장이
제작한 현지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 이승후 차장



그림 같은 자연이 있는 곳에서의 파견 근무

세계예금보험기구협회는 글로벌 예금보험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 2002년에 설립된 조직입니다. 현재 98개국의 예금보험기구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기관들과 협력하여 다양한 국가 간 경험 공유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회의 핵심 역할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금보험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협회 사무국은 스위스 바젤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는 주변에 자리한 바젤란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위스의 중심지로서 트램이나 기차를 이용하여 사무국에 출퇴근하는데요. 출근길에는 스위스의 그림 같은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일상을 시작합니다.

핵심은 교류와 협력

저의 업무는 주로 이메일을 통한 커뮤니케이션과 회원 기관들과의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사회와 연차총회 같은 대규모 회의는 정밀하게 준비하

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는 국제적으로 예금보험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결정과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세계 각국의 회원들과 원활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차를 고려하여 아시아, 유럽, 북미 등 다양한 시간대에 맞춰 회의 일정을 조정하며, 각국의 다양한 예금보험 시스템에 대한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경험과 그리움의 공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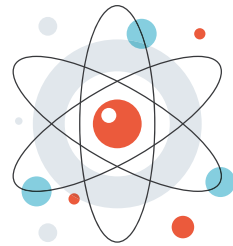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스위스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준비하여 먹습니다. 라폴레이나 풍류 같은 스위스 전통 요리도 종종 즐깁니다. 이를 통해 스위스 문화를 접하고 즐기며, 주말에는 가끔씩 유럽 프로축구 경기를 관람하면서 여가를 보내기도 합니다. 스위스에서는 영어를 잘 쓰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은 있지만 고교 시절 제2외국어로 배운 독일어를 최대한 활용하여 생활 속에서 스위스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다문화적인 환경에서 자신감을 얻고 있습니다.

가끔은 한국의 음식과 문화가 그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유럽 생활의 다양한 경험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문화적 환경에서 배운 것들은 저에게 큰 보람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글로벌 예금보험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경험을 쌓고자 합니다.



KDIC의 이웃을 소개합니다②

방사성폐기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예금보험공사는 우리나라의 여러 공공기관과 함께 다양한 업무협약을 맺어오며 다방면으로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난 6월 3일에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역할(ESG)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원아를 대상으로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예금보험공사와 함께하게 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대해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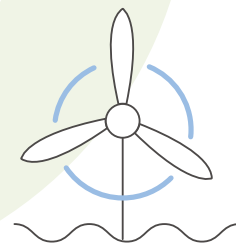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전경

방사성폐기물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란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따라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18호)로, 원자력 발전 과정에서 핵분열과 같은 핵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된다. 질량·부피당 방사능이 적은 저준위폐기물은 반감기가 짧지만 중·고준위폐기물은 땅 속 콘크리트 시설에 매장하는 등의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경북 경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지난 2009년 1월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방폐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이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이후 '방사성'과 '폐기물'이라는 용어가 위험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2013년 6월 현재의 공단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국민이 신뢰하는 방폐물 관리 선도기관'이라는 비전 하에 국가 방폐물 관리 전담 사업자로서 방폐물 관리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철저하고 안전한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의 방폐물 처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는 원자력 관련 사고 단계를 0~7 등급까지의 8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가장 높은 7등급으로 체르노빌(1986), 후쿠시마(2011) 원전사고가 있었으며,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이 100% 안전한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이 알려졌다. 방폐물이 잘못 폐기되거나 저장 후 누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소련 카라차이 호수에 저장되어 있던 폐기물이 주위 지역으로 번졌던 일도 있었고, 미국 켄터키에서는 폐기물을 강철이나 시멘트가 아닌 흙으로 덮었다가 폭우에 무너지는 등 관리·보관에 대한 지식 부족, 부주의가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안전하고 철저한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방폐물 관리 방식을 살펴보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선 고준위방폐물(열과 방사능의 준위가 높은 폐기물)의 경우 국제원자력기구의 권고에 따라 지하 500m 이상의 깊은 곳에 설치한 심층처분시설에서 안전하게 처분하고 있다. 또한 중저준위방폐물(소각, 매립, 재활용 등 자체처분을 할 수 없는 방폐물)의 경우 현재 '동굴 처분(지하 동굴 또는 암반내 천연 및 공학적 방벽의 처분방식, 총 10만 드럼 처분규모)'을 통해 처분하고 있다. 한편 더 많은 양의 방폐물을 더욱 안전하게 처분하기 위해 올해 12월에는 '표층

처분(지표면 가까이에 천연 및 공학적 방벽의 방폐물 처분방식, 총 12.5만 드럼의 처분규모)'을 위한 표준처분시설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매립형 처분(지표면 가까이에 천연방식으로 방폐물을 매립하는 처분방식, 총 16만 드럼의 처분 규모)'을 위한 매립형처분시설 설치도 추진 중에 있다.

지역사회 발전을 이끄는 방폐장 유치 지역 지원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부지가 경주시로 확정(2005년 11월)된 이후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4개의 특별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특별지원금 지급(3천억 원, 2010년 12월)', '지원수수료(방사성폐기물 반입 시 부과)', '한수원(주) 본사 이전(2016년 3월)', '양성자가속기 사업(2013년 7월부터 운영 중)'이 그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신라궁성 월성유적 발굴복원', '신라황룡사지 복원', '월성해자 발굴복원', '전통도자기 전승 공방마을 조성', '관광객 휴식공간 조성' 등 총 55개의 일반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청정 누리봉사단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동반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송죽원 아동 대상 역사·문화체험 프로그램 진행

예금보험공사는 6월 27일 1박 2일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아동보육시설 송죽원 아동 16명과 함께 한국원자력환경공단과 경주지역 역사·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6월 3일 사회공헌 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첫 사업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송죽원 아동들은 첫째 날 전문해설사와 함께 천마총 대릉원 등 유적지를 견학하며 경주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이어 둘째 날에는 경주에 위치한 방폐장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홍보관을 찾아 방폐장의 역할과 안전성,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업무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예금보험공사 유재훈 사장은 "기존의 사회공헌 사업이 단순 물질적 후원에서 그친 것에 비해 이번 프로그램은 수혜자들이 직접 체



험하고 활동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며, "예보는 향후에도 지역사회 및 사회취약계층에 보탬이 되는 기관이 되겠다"고 전했다.

“청렴예보, 오늘도 내일도 맑음”

청렴 의식 고취를 위한 예금보험공사의 노력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연이어 개최하며 임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지난 4~5월에는 윤리경영 아이디어 및 청렴 관련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였기에 더욱 뜻깊었던 두 행사의 당선작과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01 내가 직접 제안하는 예보의 윤리경영 모델, 윤리경영 아이디어 공모전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는 지난 4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사에서 실현할 수 있는 윤리경영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예보는 윤리경영에 있어 직원들의 시각이 반영된 참신하고 다양한 모델을 제안받을 수 있었고, 직원들은 예보의 윤리경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당선작 소개

1. AI 자금심사시스템 도입 재무관리부 황윤진 선임조사역

기업에서 업무 생산성을 올리기 위한 AI시스템 도입은 이제 필수가 되었다. 운영경비 자금심사 업무의 경우, 증빙 관련 서류 제출 여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적절한 시간·장소 등에서의 사용 여부, 지급 경비 계산의 정확성 등 많은 항목을 확인하는데, 예산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정형화되어 있어 AI시스템을 도입하는



윤리위험 자동감지 시스템은 도로 위의 속도·신호위반을 감시하는 단속카메라와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

것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금심사에 대한 추가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AI가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담당직원이 직접 검토할 수 있도록 보완도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이 AI 자금심사시스템이 도입되면 자금심사의 객관성이 확보되고 필수 확인 항목에 대한 누락이 최소화되어 윤리위험 통제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

2. 디지털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윤리위험 사전식별

SIF정리부 박광록 부장

최근 시중은행 사례를 보면 대형사고 발생에 따른 모니터링 강화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횡령, 배임 등의 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윤리경영에도 디지털 방식을 도입하여 윤리위험 소지를 사전에 쉽고 빠르게 찾아내어 조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①외부인 접촉가능성 등 윤리 위험도 체크 가이드를 작성하고, ②부서 실무자가 과거 문서까지 포함하여 위험도를 표시하여 빅데이터화 해두면, ③이를 바탕으로 위험도가 자동 감지되어 윤리경영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실시간 알려주는 IT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윤리경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한다.

3. 윤리 EBTI(Ethic Business Type Indicator)평가

조사기획부 김홍식 팀장

개인별 성향 분석을 위한 MBTI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부서 및 팀 업무의 윤리업무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통제방안을 마련하여 조직 내 지속적인 윤리경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모델이다.

※이 아이디어는 실제 업무에 반영되어, 내부통제실에서는 올 7월 회계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EBTI 윤리감수성을 진단하였다.

예시

① 윤리경영의 방향성 (Extroversion /Introversion)	② 윤리위험의 인식 시기 (Before / After)
③ 윤리위험의 통제 가능성 (Nay / Yea)	④ 윤리위험의 판단 근거 (Thinking / Feeling)

A라는 부서의 업무관련

①윤리위험이 대외적이고, ②업무개시 전 파악이 가능하고, ③통제가 불가하고, ④ 윤리위험 판단근거에 감정적인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경우, 윤리경영 EBTI는 'EBNF'로 유형화

02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영화제, 청렴영화상

예보는 윤리경영 아이디어 공모전에 이어 임직원의 청렴 공감대를 강화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5월 제1회 '청렴영화상'을 개최하였다. 이번 청렴영화상에는 우리 사회 또는 공사의 바람직한 모습, 부정한 청탁 등을 거절한 청렴사례, 타기관 대비 우수한 공사의 청렴 관행·문화 등을 주제로 반부패·청렴, 윤리, 인권 관련 영상, 디자인, 문구 콘텐츠를 직원들이 직접 제작, 출품하였으며, 6월 14일 공개 상영을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였다.



2024 상반기 KDIC NEWS



세계 투자자보호기구(ICS) 워킹그룹에서 본격 활동

예보는 지난 5월 28일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투자자보호기구(ICS) 워킹그룹 회의에 최초 참석하여 투자자보호기구(ICS)로서 정식 회원 활동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예보는 '98년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통합예보기금으로 편입된 이래 투자자 예탁금을 보호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해외 주요국 투자자보호기구와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예보 유도팀, 전국 춘계 장애인유도선수권 대회 선전

예보 장애인유도팀은 지난 6월 1일 개최된 전국 춘계 장애인유도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김현빈, 김관, 이주호 선수가 각 체급별 1위를 차지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예보는 총 7명의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 증진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23.12월) 및 서울특별시장 표창(24.4월)을 수상했다.



KDIC 옥상정원 오픈

예보는 지난 4월 8일 직원의 휴식공간 확대를 위해 본사 옥상의 빈공간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탈바꿈했다. 옥상정원에는 다양한 꽃들 외에 천년소나무를 식재하고, 곳곳에 벤치를 마련하여 직원들이 도심 속에서도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반려 해변 입양 1주년, 수협은행과 원산도 해변 공동 정화활동 실시

예보는 반려해변 입양 1주년을 맞이하여 수협은행과 함께 지난 4월 12일 충남 보령시 소재 원산도 해변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또한, 이날 예보는 자매결연 마을인 점치여촌계에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도시·어촌 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24년('23년 실적)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2년 연속 A등급 달성

예보는 '24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

이로써 예보는 지난해에 이어 감사부서로서의 전문성 및 감사성과 우수성을 인정받아 최고 등급을 유지하게 됐다.



부실저축은행 보유 미술품 전시 및 경매 실시

예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7일까지 서울 성북구 소재 미술관에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외 미술품 총 19점을 시민들에게 무료 개방하고 온라인 경매 등을 통해 매각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전시 작품에는 제프 쿤스, 조안나 바스콘셀로스 등의 작품이 포함되어 눈길을 끌었다.



착오송금 관련 보험상품 출시 및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 시행

예보는 신한EZ손해보험과 협업하여 착오송금인이 비용을 보전받아 원금을 100% 회복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였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지방거주 고령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산 등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충주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예보와 충주시는 지난 6월 14일 충주시청에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①충주시 체험관광 등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력, ② 충주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③ 충주시민 대상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등이다.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1.24%) 전량 매각, 공적자금 1,366억원 회수

예보는 지난 3월 14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1.24%(9,538천주) 전량을 우리금융에 매각하고 공적자금 1,366억 원을 회수하였다. 예보는 과거 외환위기 당시 자금지원 등을 통해 '98년 이후 우리금융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된 이래 이번 매각을 통하여 26년에 걸친 민영화를 최종 완성했다.

'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고 등급(최우수) 달성

예보는 행정안전부 주관 '23년도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총점 98.88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여 역대 최고 점수와 등급을 달성했다. 예보는 이 평가에서 정보공개 청구인의 고객만족도 평가 결과 개선, 원문공개 충실성 제고 노력, 청구처리 적정성 관리 강화 등 정보공개 제도 운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점수와 등급이 모두 상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소고

최근 제4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세간의 관심이 뜨겁다. 현재 더존뱅크, U뱅크, KCD뱅크, 소소뱅크의 4개 컨소시엄이 새 인가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이번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하는 포용금융을 표방하고 있다. 제4 인터넷전문은행은 어떤 점에서 기존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과 차별성을 가져야 하며 어떤 혁신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면 인가 조건이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이에 앞서 기존 인터넷전문은행도 이제 설립 7주년 차에 접어들어 따라 그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해 먼저 짚어보고자 한다.

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예금보험공사 객원연구위원 **여은정** 교수



인터넷전문은행의 금융혁신과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을 중심으로

주지하다시피 인터넷전문은행은 금융혁신, 경쟁 촉진, 소비자 편익 증진을 목표로 설립되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3개 사는 저마다 약간씩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추구하면서 흑자를 거두고 있어 나름대로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도 이 세 가지 설립 목표 측면에서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금융혁신 효과로 소비자 접근의 편의성, 금융증개와 결제의 혁신, 신용평가 혁신, 모바일 채널 집중을 통한 이용자 경험 개선, IT 혁신 등을 들 수 있는데 소비자 직접 설문이나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참조할 때 다양한 금융서비스 접근성과 소비자 경험이 현저하게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도한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이용 경험의 확연한 개선은 전체 금융권으로 파급을 가져왔다.

둘째, 은행산업 경쟁에 관한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참여한 연구과제에 따르면 가계 신용대출 시장 및 비대면대출 시장에 대한 시장집중도 지표(HHI, CR3)는 인터넷전문은행이 2017년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한 이후 확연하게 낮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나아가 인터넷전문은행 더미를 설명변수로, 시장집중도를 종속변수로 통합회귀분석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효과가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에서 시차를 고려한 고정효과 모형 패널분석을 수행해도 이와 같은 결과는 강건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산업의 시장집중도를 완화시켜 경쟁을 촉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시장집중도가 은행산업 경쟁도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 중의 하나로 가장 손쉽게 분석할 수 있는 지표라 그 의미가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소비자 편익 증진 효과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금리대출과 금융포용 부분에서 효과를 살펴보면 인터넷전문은행뿐 아니라 다른 인접 업권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자산 규모상, 이들의 중금리 대출만으로는 신용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금리 단층 현상을 양적인 측면에서 유의미하게 완화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금리 기관(시중은행)과 고금리 기관(저축은행)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의 중금리 시장 진출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러한 패턴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영업 시작 시점과 겹쳐 나타난다. 가격(금리)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의 신용스프레드(신용점수 900점대 대출금리 - 700점대 대출금리)는 2017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2019년부터는 2%p에서 안정화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역할은 그 자체로 중금리 대출시장을 확대시켰다고보다는 다른 업권을 자극해서 중금리 대출 시장의 전체 규모를 키우고 금리 스프레드를 낮추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과 규제

물론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에 이와 같이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초기에 보였던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의 혁신이 사라졌다는 비판과 함께 '땅 짚고 헤엄치기'라는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사업을 집중해서 시중은행과 유사한 행태를 보인다는 비난도 있다. 또한 설립 초기에 빈약한 자본력으로 인해 목표만큼 중저신용자 대출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하였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시 가장 중요시해야 할 요소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고도화된 신용평가 모형, 대주주 적격성 및 자금조달 능력, 건전성 관리능력 외에 기존 은행과의 차별성과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만약 새로 인가받을 인터넷전문은행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특화라고 한다면 이에 걸맞은 혁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는 금융정보가 부족하여 제대로 된 신용평가가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Thin Filer라고 볼 수 있는데 일례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들의 매출 패턴을 예측함으로써 대출 상환 규모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는 혁신 등을 창출할 수 있다면 유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매번 인터넷전문은행 인가가 새로 논의될 때마다 목표 중금



리대출 비중이 늘어나는데 이러한 현상은 은행산업의 건전성 및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향후 경기가 침체될 경우 자본력과 업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터넷전문은행 전반에 걸친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대주주 적격성과 자금조달 능력때문에 현재 논의되고 있는 컨소시엄들이 대부분 대형은행을 끼고 구성되고 있는데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사업다각화 효과, 생산성 향상 등의 측면에서 안 할 이유가 없는 투자이겠지만, 감독당국에서는 혹시라도 이러한 과정에서 규제가 회피되는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이론적으로 경쟁은 항상 효율성 제고의 핵심적 동인이기도 하며, 적절한 규제가 갖춰진다면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 '적절한 규제'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감독당국이 엄격한 인가 조건 하에서 상황을 보면서 경쟁 촉진과 금융안정성 사이에서 균형을 잘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햇빛과 공기에도 세금을? 세계사 속 기상천외한 세금이야기



영국의 거리를 지나다 보면 오래된 건물들의 창이 막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윌리엄 3세 때 도입된 '창문세'의 흔적이다.

명예혁명으로 집권한 윌리엄 3세는 '난로세'를 폐지하면서 생긴 세수공백을 메꿀 새로운 세금이 필요했다.

• 잘 사는 집일수록 난로가 많다고 보고 부과한 부자 증세

부족한 세금을 어디서 메꾸지?

이참에 군비도 확충하고... 아주 참신한 명목의 세금 없을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서 걷을 수 있는 세금이면 좋겠는데...

창문! 모든 집에는 창문이 있지 않은가?

어서 집집마다 '창문세'를 걷도록 해라!

난로 수 셀 때는 집안에 들어갔어야 했는데 창문 수는 밖에서도 잘 보이니 편하구만~

이렇게 만들어진 '창문세'를 피하기 위해

영국 국민들은 벽돌이나 합판으로 창문을 막아 버리기 시작했고 창문이 있던 자리는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답답해도 세금을 덜 낼 수만 있다면!

우중충한 날씨에 창문까지 가리자 창문세는 우울증에 걸리게 된 국민들에게 '햇빛과 공기'에 물리는 세금이라는 오명을 썼다.

사실 이 창문세의 원조는 프랑스로, 프랑스의 창문세는 잠시 폐지되었다가 영국을 따라 다시 부활하였다.

영국과 달리 프랑스는 창문의 갯수가 아닌 창문의 폭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기 때문에 이후 프랑스의 창문은 좁고 길어졌다.

이것이 프렌치 스타일-

네덜란드는 도로에 접한 건물의 면적에 따라 세금을 매겼고 덕분에 네덜란드 국민들은 폭은 좁고 긴 형태의 집들을 짓게 되었다.

창의적인(?) 세금의 도입이 국민들의 주거형태까지 바꾼 것이다.

어떤 세금은 국민의 풍습과 신념까지 바꾸기도 한다. 러시아의 표트르 대제는 국민들의 수염에 '수염세'를 매겼는데

근대화도 이루고 세금도 걷고 일석이조 아닌가!

하느님이 주신 내 고귀한 수염을 자르라니! 모독이요!!

안자르면 귀족출신 상인은 100루블 신하, 공무원, 일반 상인은 60루블 평민은 30루블 내세요~

당시의 1루블은 은 28g

처음에는 반발이 거셌지만

수염에 동행세까지 물리다니...

자를게요...ㅠㅠ

'수염세' 도입 7년 후 러시아에서는 수염 기른 남자가 사라졌다고 한다.

국가는 어떻게든 세금을 더 걷고 싶어하고 국민은 어떻게든 덜 내고 싶어한다.

영국의 '모자세'

로마제국의 '오줌세'

파시스트와 나치의 '독신세'

양모의 기름을 빼려고 공중화장실에서 오줌(암모니아)을 가져가는 사람에게 부과

우유한 유전자 확산이 명분

혼자 살려면 세금을 내라!

국가가 다양한 창의적인 세금들을 만들면

국민들 역시 다양한 방식으로 이에 대응해 왔다.

영국신사의 높고 번쩍이는 실크햇은 모자세를 걷다니 부당하다!

모자를 살 때마다 세금을 걷다니 부당하다!

영국신사의 높고 번쩍이는 실크햇은 모자세에 대한 저항의 상징!

역사에 비춰 볼 때, 너무 과도한 세금은 결국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왔고, 사회의 전복이나 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16세기 유럽 농민반란 미국의 독립운동 프랑스 대혁명

창문세까지 매기는 세금!

당시의 민요엔 "천국은 평화와 안식이 있고 세금이 없는 곳"라는 내용이 있었다.

이제 더 이상은 못 내겠다!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 다니엘 디포는 이렇게 말했다.

죽음과 세금만큼 확실히 믿을 것은 없어.

살아 있는 한 세금은 피할 수 없기 때문이지.

세금의 숙명인 것이다.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예금보험공사 직원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특별한 코너 '함께 만드는 예보광장'. 이번호에는 직원들의 반려 동·식물이야기부터 영화, 책을 읽고 느낀 소회, 최애 맛집 추천 글을 담아보았습니다. 공감과 재미가 가득한 사연을 통해 예보 직원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들어 보세요. 서로의 생각과 이야기를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예보의 모습을 기대해봅니다.

어쩌다 달팽이 집사

홍보실 정인호 실무역

어느 날 장모님이 아이들 보여주라고 달팽이를 갖다주셨다. 부랴부랴 '달팽이 키우기'를 검색해서 달팽이가 살 작은 투명상자와 달팽이 흙을 사 왔다. 울릉도산 부지깽이나물에 붙어 있었다고 하니 믿거나 말거나 무려 울릉도에서 온 명주달팽이다. 2마리 이상이어야 알을 낳는다고 해서 여행 중 비 오는 유채꽃밭에서 한 마리를 더 데려왔다. 키우는 건 결국 엄마, 아빠의 몫이 되었는데, 의외로 아내가 달팽이 키우는 것을 즐거워했다. 식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아내가 달팽이가 채소를 먹을 때 보이는 입과 이빨을 보며 신기해했다(지구상 이빨이 제일 많다고 한다). 명주달팽이의 수명은 1~2년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안 반려달팽이로 계속해서 가족의 즐거움과 애깃거리가 되어주길 바라본다.



소개대상 : 달팽이
이름 : 달퐁이, 달콩이
품종 : 명주달팽이

불리는 사람을 잘 따르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 숨거나 도망치지 않고 사람들과 잘 어울려 노는 모습을 보여주곤 한다.

고양이를 데려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잠을 자다가 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듯하여 괴로워하며 잠에서 깼다. 알고 보니 고양이가 침대 위로 올라와 엉덩이를 내 코에 대고 있었다. 야생성이 남아있는 고양이가 자신의 등을 맡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한다는 의미라고 한다.

퇴근할 때마다 고양이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아옹거리며 반겨줄 때마다 정말 귀엽다. 하지만 처음에는 배설물 냄새가 매우 지독

나의 반려동물과 식물 이야기

해외재산회수 TF 윤가하 차장

2020년 4월경, 동네에서 사람을 잘 따르는 흰색 고양이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꾸 눈길이가던 그 고양이는 사람을 매우 잘 따랐다. 혹시 주인이 있을까 싶어 한 달 동안 먹이를 주며 친해지고 관찰한 결과 주인이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2020년 5월 1일,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오기로 결심했고, 포획했다. 고양이가 있던 자리에 이 친구를 잘 키우겠다는 메모를 남겨두었다.

이 고양이는 온몸이 하얀 털로 덮여 있으며, 흔히 '개냥이'라고

반려 동/식물

사랑스러운 우리집의 반려 동물과 반려 식물을 소개합니다.



소개대상 : 고양이
이름 : 킹냥이



해서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이제는 많이 적응되었지만, 여전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다. 우리 집에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동식물 친구들이 있다. 그중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친구는 큰징거미새우이다. 2016년 6월, 나는 정부 행사인 '정부3.0 체험마당'에 차출되어 갔다가 이 친구를 처음 만났다. 행사장에는 큰징거미새우 홍보 부스가 있었고, 낚시를 하면 한 마리씩 분양해주는 이벤트가 있었다. 그곳에서 처음 만난 큰징거미새우를 '총총이'라고 이름 지으며, 나의 물생활이 시작되었다. 동남아시아가 원산지인 큰징거미새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렵고,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는 기수에서 번식한다. 총총이는 3년 정도 함께 지내다 하늘의 별이 되었다. 총총이 덕분에 물생활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 기억이 소중하다. 다음으로 우리집에 온 친구는 붉은발남방가재 '가돌이'였다. 호주가 원산지인 붉은발남방가재는 집게 부분에 붉은 띠가 있어 '레드크로우'라고 불린다. 갑각이 은하수를 닮은 듯한 독특한 외형과 빠른 성장 속도, 튼튼함 덕분에 키우는 재미가 있었다. 가돌이도 3년 정도 살다가 세상을 떠났고, 후손들이 한동안 집에서 대를 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가재를 키우면서 대가 끊기게 되었다. 참고로, 영화 '범죄도시'에서 장첸이 먹었던 샤오롱샤

가 바로 이 가재로 만든 요리이다. 특이한 식물도 키우고 싶었던 나는 어느 날 아보카도를 먹다가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아보카도 씨앗을 심어 키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후가 맞지 않고, 수입 과정에서 저온 보관으로 씨앗이 손상되기 쉬워 크게 자라지 못했다(실제 아보카도 나무는 엄청 거대하다). 또한 아보카도는 자용이숙 특성을 가져 암꽃과 수꽃의 성숙 시기가 달라 두 그루 이상 있어야 수정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열매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키우는 즐거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파인애플도 나의 식물 친구 중 하나다. 파인애플의 위쪽 잎사귀를 '크라운'이라고 하는데, 이 크라운을 잘라 심으면 자라기 시작한다. 3-4년 후에는 작은 파인애플이 열리기도 한다. 파인애플을 키우기 시작한 지 1년 반 정도 되었고, 아기 파인애플도 얻어 파인애플 가족을 늘려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렇듯, 나의 집에는 다양한 동식물 친구들이 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가진 이 친구들은 나에게 많은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한다. 앞으로도 새로운 동식물 친구들을 맞이하며, 그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길 것이다.



큰징거미새우 '총총이'



붉은발남방가재 '가돌이'



아보카도와 파인애플

자유기고

문학·예술과 관련된 예보인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담 너머의 참상: 소장의 일상 속에 숨겨진 지옥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를 보고

금투리스크관리부 김정규 선임조사역

평식이 형(박평식 평론가를 칭하는 인터넷 밈)이 9점 준 영화.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였다.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라는 정보만 가지고 영화관에 들어갔고, 후에 영화 제목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및 그 주변 지역을 뜻하는 것임을 알게 됐다.

제목과 소재에서 오는 중압과는 달리, 카메라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장인 루돌프 히스와 그 가족의 일상을 관찰하듯 비춘다. 소장의 집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수용소와 나뉘어져 있으며, 이는 마치 천국과 지옥이 공존하면서도 분리된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벽 뒤 수용소에서 벌어지고 있을 참상은, 굴뚝에서 뿜어내는 연기를 제외한다면 결코 시각적인 방식으로 묘사되지 않는다. 그저 영화 내내 들려오는 사람들의 비명과 총성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그것을 떠올리게 할 뿐이다. 그리고 소장 가족에게 그 소리란,



아무런 관심이나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지 못하는 무의미한 소음과도 같다. 보여주지 않아 더더욱 보이는 것 같고, 소리만으로도 구토감을 느끼게 하는 영화였다. 특히 잠전 속에서 울려 퍼지는 엔딩곡에는, 서서히 잠식되어 압도당하는 듯한 느낌마저 받았다. 평식이 형은 9점을, 동진이 형(이동진 평론가)은 10점을 준 영화. 이들의 이름을 감히 빌려, 이 영화를 추천한다.

중앙은행의 작동 원리를 파헤치다

경제 서적 “연방준비제도 101”을 읽고

예금보험연구소 김태균 차장



현대의 화폐 창조 원리에 대해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 책을 마주치게 되었다. 저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공개시장운영 트레이더로 일했던 조셉 왕(Joseph Wang)이며, 웹사이트(fedguy.com)도 운영하고 있다. 저자는 한국의 경제지와 최근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그 영상에서는 생각보다 젊어서 놀랐다. 현대 중앙은행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료들은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데, 뉴욕 연준에서 직접 일한 저자가 쓴 이 책을 통해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대출이 예금을 만든다는 현대 예금의 속성(“흔히 은행이 예금을 받은 다음 다른 사람에게 예금을 빌려준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은행은 대출을 제공할 때, 기존 예금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새로운 은행예금을 만든다.”(p. 30))에서부터, 화폐의 종류, 돈을 만드는 자들, 그림자 은행, 유로달러 마켓, 금리, 단기금융시장, 자본시장, 위기통화정책, 연준 감시법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토막글 ‘패시브 투자의 부상’에서는 놀랍게도 가치투자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는데, 가치주들은 주로 소규모 기업이어서 비중이 매우 커져 버린 패시브 자금의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실무적인 내용도 나온다. 경제와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이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인간과 기술의 경계에서

소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을 읽고

채권관리부 박주호 조사역

“탐구하고 천착하는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을 이해해보려는 이야기를 좋아한다. (...) 어디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서로를 이해해보려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싶다. 앞으로 소설을 계속 써나가며 그 이해의 단편들을, 맞부딪히는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한다.”

- 김초엽,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작가의 말 중에서 -



이 책은 7가지 이야기가 담긴 SF 단편소설집이다. 우주항공기술, 생화학, 데이터분석 등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세상이 온다면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적절한 대화, 소재, 장면으로 몰입감 있게 구성하여 이야기 속 세계와 인물이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할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특히, 혈액과 체액을 대체하는 물질을 연구한 끝에 냉동수면 기술을 완성한 한 과학자의 이야기, 글이 아닌 그림으로 역사를 기록하는 등 색채로의 사소통하는 외계 행성 이야기는 ‘항공우주’나 ‘유전자 조작’ 같은 소재에만 익숙한 내게 신선한 소재로 다가왔다.

7가지 이야기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관내분실’이라는 제목의 이야기였다. 죽은 사람의 뇌를 스캔하여 도서관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할 수 있게 된 세상에서, 뒤늦게 죽은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된 딸에 대한 이야기였다. 설정이 독특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시냅스 연결 패턴 데이터’가 도서관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는 존재하지만, 그 위치값을 가리킬 ‘인덱스’가 삭제되어 어머니가 실종돼버렸다는 설정이었다. 도서관 직원은 어머니의 데이터를 찾기 위한 인덱스를 대체하려면 기술적으로 단순한 검색어가 아닌 어머니의 특정한 사고나 행동 패턴을 이끌어낼 수 있는 ‘유품’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머니와 연을 끊고 살았던 주인공은 어머니를 식별할 수 있는 유품을 찾고자 그제야 호기심을 품고, 어머니의 삶을 ‘이해’해 보고자 한다. 본인을 낳기 전 어떤 일을 하셨는지,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 등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고, 어머니의 삶과 그 결과 어머니

가 자신에게 했던 서툰 행동과 표현들을 차츰 이해해 나간다. 열린 결말이었지만, 작가의 이야기 전개 방식과 시선이 아름다웠고, 나 또한 나의 부모님에 대해서 스스로 더 깊이 질문할 수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야기였다. ‘SF’라기보다 한 편의 ‘드라마’를 본 듯한 느낌이었다. 한편, 이 책의 모든 이야기가 재밌었지만, 각 이야기의 결말이 힘없이 끝나는 점은 아쉬웠다. 개별 인물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지 작가만의 독창적인 전개를 더 보고 싶었지만, ‘이제부터 재밌어지겠다’라고 느낄 때쯤 이야기가 뚝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쩌면 작가는 ‘소설 속 살아있는 인물들’ 또는 그 인물들의 삶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독자’가 스스로 뒷이야기를 이어가길 바랐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어느 SF 소설이 그렇듯, 이 책 또한 ‘SF’라는 장르를 활용해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타심은 어디서 오는가, 영혼이란 무엇인가 같은 ‘철학 질문’을 던지고 있고, 그 답을 찾는 것은 결국 본인이 해야 한다는 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저자 김초엽은 <작가의 말>에서 소설을 통해서 이해의 경계를 부수고, 단절된 존재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한다.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은 저자의 이런 마음이 잘 느껴지는 따뜻한 시선들이 담긴 책이었다. SF 소설이지만 설정과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휴가철에도 부담 없이 톡톡이 딱 읽기 좋은 책이라 누구에게나 추천한다.

추천 맛집

나만의 '최애 맛집'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향과 맛으로 유혹하는 '시바 여왕'의 커피 '퀸 시바'

해외재산회수TF 윤성현 팀장



추천하는 이유

'시바의 여왕'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예멘과 에티오피아 지역이었던 시바가 상징하듯이, 아프리카 커피 원두를 로스팅하고, 핸드드립을 주력으로 한다. 주인장(임봉수)은 회계사로 일하다가 가족이 카페를 창업하기로 결심하고 경복궁 옆 청와대 가는 길에 '퀸 시바'를 열었다. 요즘 날씨도 좋으니 산책하다가 들러서 커피 한잔해 보시길 권한다. 특히 '파피초' 원두를 추천한다. 매우 특이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싸지 않다는 점이 단점인데, 그래도 맛으로 수공이 된다. 주인장이 쓴 <우리 가족이 카페를 열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가족경영 카페의 노하우가 담겨 있으니 관심 있는 분은 일독하셔도 좋을 것 같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자로 35-1(경복궁역 3번 출구)
연락처 : 02-733-2233
대표 메뉴 : 스페셜티 싱글 오리진 핸드드립 커피



한옥뷰를 보며 즐기는 쫄깃한 피자 맛 '고트델리 서촌'

금투리스크관리부 김연아 선임조사역

추천하는 이유

경복궁 근처 한옥뷰 맛집, '고트델리 서촌'. 서촌의 델리답게 맛 보장은 물론 잔잔한 분위기와 한옥뷰를 즐길 수 있다. 혼자 가도 좋지만 여럿이서 다양한 메뉴를 쉼어해보는 것도 추천한다. 그중 '바질 토마토 고트 피자'를 강력 추천한다. 바로 구워 따끈하고 쫄깃한 도우와 마리네이드된 새콤한 토마토, 생바질이 듬뿍 올라간 피자는 느끼하지 않고 부담이 없이 양껏 먹을 수 있다.

* 웨이팅이 있으므로 평일 오픈런을 추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57가길 13 1층
연락처 : 0507-1330-0815
대표 메뉴 : 샌드위치, 바질 토마토 고트 피자 등



'고트델리 서촌'의 창밖 풍경

튼튼한 국민의 금융지킴이

거친 파도에도 언제나 든든하게 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어떠한 금융위기에서도 예금보험공사가 여러분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KDIC 예금보험공사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